

3조 6300억 투자 에코델타 초대형 데이터센터 시동

리뉴얼 부산

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4곳 협약 박 시장 취임 후 최대 투자 유치

서버 50만 대 규모 2027년 가동 신재생에너지·친환경 기술 접목 글로벌 '데이터 허브도시' 발판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2027년까지 50만 대 이상의 서버를 갖춘 초대규모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가 들어선다. 데이터센터는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정보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부산이 '글로벌 데이터 허브도시'로 부상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 기사 3편

부산시는 6일 시청에서 에코델타시티 그린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집적단지 입주기업들과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시와 MOU를 맺은 데이터센터 전문기업은 △(주)부산에코델타그린데이터센터 PFV △엠퍼리온DC 컨소시엄 △BEP&미래에셋 컨소시엄 △(주)엘리스그룹 등 4개사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시가 지난해 9월 입주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이들 기업



6일 부산시청 영성회의실에서 부산시와 에코델타시티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입주기업 4개사와의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다. 투자 금액은 3조 6300억 원 규모다. 입주기업 4개사는 (주)부산에코델타 그린데이터센터 PFV, 엠퍼리온DC 컨소시엄, BEP&미래에셋 컨소시엄, (주)엘리스그룹이다. 김중진 기자 kji1761@

이 에코델타시티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유치가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4개사는 입주기업 심사 때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라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운영 등에 총 3조 6313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단일 사업 투자 유치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기업은 설계,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연내 마무리짓고, 내년 초 데이터센터 건립에 들어간다. 에코델타시티 내 데이터산업구역 산업시설 용지 17만 7080㎡에 조성되는 그린데이터센터 클러스터는 높은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의무화된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 사용으로 에너지 효율

이 낮은 시설이지만,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서는 그린데이터센터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된다. 서버 10만 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5기가 조성되며 본격 가동은 2027년부터다.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해 건설과 운영 등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1022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

다. 특히 오염유발 시설로 인식됐던 기존 데이터센터와 달리 친환경 설계와 최첨단 운영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정보통신 기술 분야 국내외 우수 기업 유치는 물론, 친환경 건축, 정보기술장비 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후방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가적인 생산유발은 8조 298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조 4552억 원에 이르고, 관련 고용 효과도 5만 5449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더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수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노출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부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으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 분산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부산이 비수도권 지자체 간 데이터센터 선점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관련 전문 인력, 지리적 이점을 두루 갖춘 부산은 데이터산업의 글로벌 허브로서 최적지로 꼽힌다.

무엇보다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정보통신기술 분야 핵심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산이 '동북아 데이터산업 허브'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부산 주력산업의 첨단 디지털 신산업으로의 재편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에코델타시티 그린데이터센터는 기존 공장형 데이터센터와 달리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설계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우수 기술이 적용된다"며 "인공지능, 반도체, 냉각 장치, 서버 장비 등 관련된 다양한 전후방 분야 기업 유치가 가능해진 만큼 지역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데이터센터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전재수 아성에 5선 서병수 도전 북강서갑 '빅매치'

국힘 출마 요청에 서 의원 수용 지역 터줏대감과 다선 중진 대결

국민의힘 부산 북강서갑 총선 후보로 부산시장을 지낸 5선의 서병수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서 의원의 출마를 공식 요청했고, 서 의원은 7일 기자회견에서 수락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아성'인 이 지역에 마땅한 대항마를 찾지 못했던 여당이 '서병수 카드'를 내밀면서 4·10총선에서 북강서갑이 전국적인 '빅 매치' 지역으로 부상했다.

▶관련 기사 4편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당이 힘들 때도 늘 당을 지켜온 서 의원에게 북강서갑에 출마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고, 그 직후 서 의원은 <부

산일보>에 "나라와 당을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한 만큼 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 요청을 수용할 것"이라며 "힘겨운 도전이 되겠지만, 용감하게 나서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50대 초반의 당내 차세대 리더로 통하는 전 의원과 부산시장을 지낸 전국구 중진 서 의원의 맞대결은 전국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하다. 전 의원은 30대 초반인 2006년 북구정당 선거부터 시작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지역에서 5번이나 출마한 터줏대감이다. 철저하게 바닥을 다지는 선거운동으로 18, 19대 패했던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을 20, 21대에서 기어올라 올렸다. 부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가장 탈환하기 까다로운 지역'으로 꼽혔고, 실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들도 당의 차출 요구를 거부할 정도였다.

전창훈 기자 jch@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내년 5058명 뽑는다

3058명서 18년 만에 늘어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의대 입학 정원은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집단휴업을 포함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기사 8편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8년 만에 늘어 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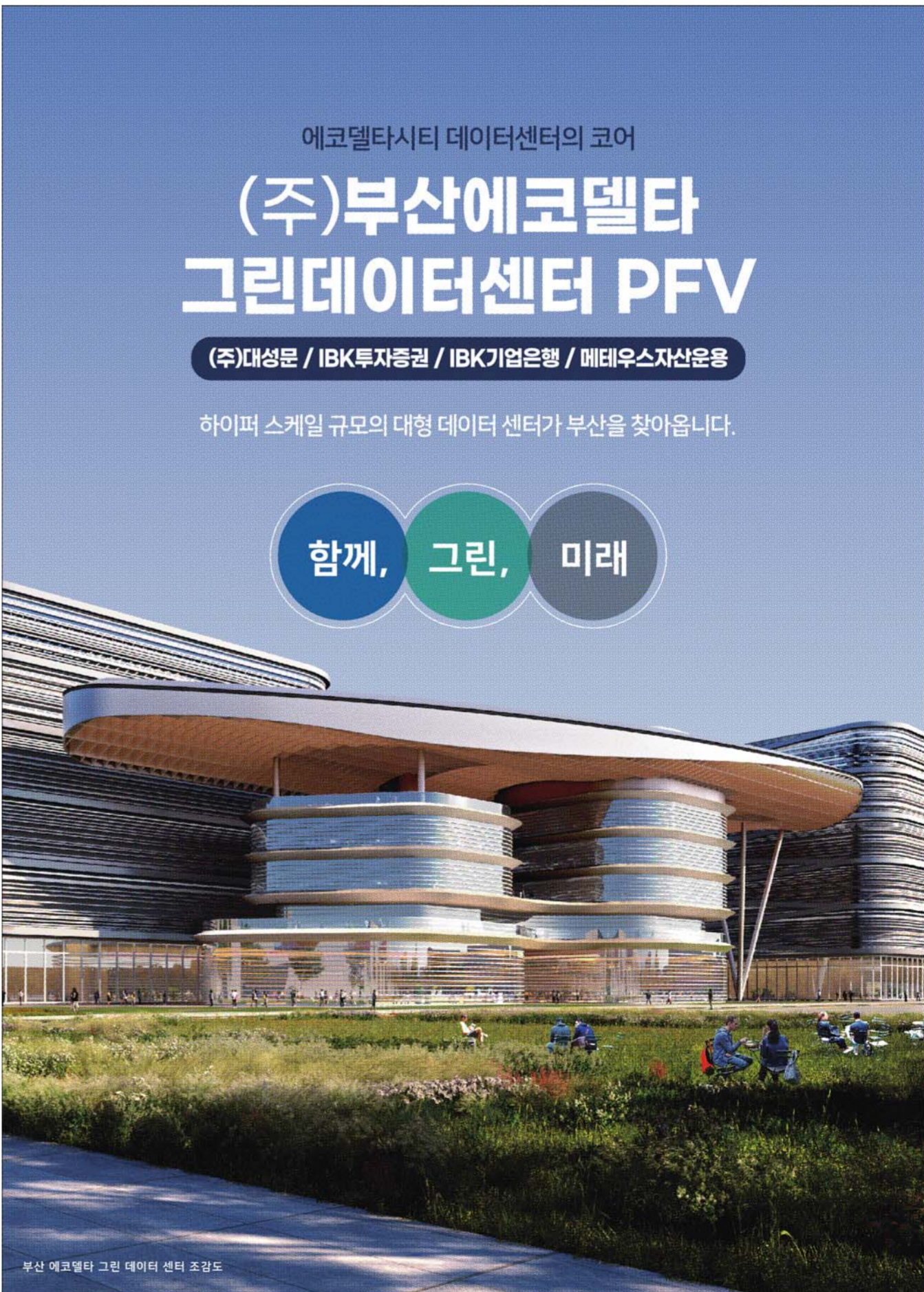
보건복지부가 밝힌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올해 입학 정원의 절반이 넘는 65.4%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수요 조사 결과(2151명~2847명)보다 적지만, 1000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본 의료계 예상보다 큰 규모다.

복지부는 오는 4월 중순순계 대학별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등 비수도권 국립대와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발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파업에 돌입하는 즉시 업무 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



에코델타시티 데이터센터의 코어
**(주)부산에코델타
그린데이터센터 PFV**

(주)대성로 / IBK투자증권 / IBK기업은행 / 메테우자산운용

하이퍼 스케일 규모의 대형 데이터 센터가 부산을 찾습니다.

함께, **그린,** 미래

부산 에코델타 그린 데이터 센터 조감도

BNK 캐피탈
장기렌터카

문의전화 1577-2280

BNK 캐피탈 준법감시인심의회 2023-0161(2023.08.02~2024.08.01)